

동양, 기능성 나노 실리카 국내생산

군산공장에 300억원 투자 ... 독자기술로 2005년까지 2500톤 생산 목표

동양제철화학이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기능성 나노(Nano) 실리카(Silica) 제조공장을 전북 군산에 건설한다.

동양제철화학은 4월14일 “현재 군산공장에 300억원을 투입해 한해 6000톤의 실리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004년 1차로 130억원을 투입해 한해 2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05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기능성 나노 실리카는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6사만이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다 동양제철화학이 처음으로 1996년부터 8년 동안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기능성 나노 실리카의 국내수요는 한해 6000여톤으로 동양제철화학이 양산체제를 갖추면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래에서 추출한 금속규소에 가스분해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기능성 나노 실리카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첨단 기능성 제품으로 반도체 웨이퍼, 광섬유,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주요 원료로 쓰인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나노 실리카 신규투자로 50여명의 고용창출과 14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반도체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활성화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16>